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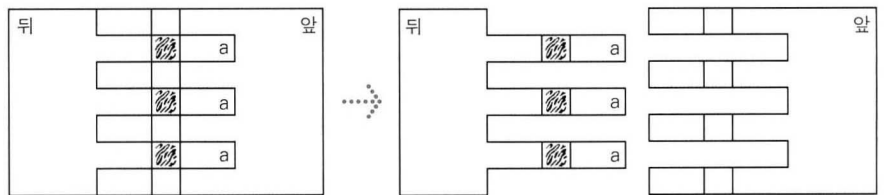
-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,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.술.제.본. ● <출판저널>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.순.덕.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●

고서 복원을
책임지는
현대식
교차된. 구조.

백순덕
렉토베르소(www.rectoverso.co.kr) 대표

지난 11월 1일, 일본의 니혼바시에서 제본 컨퍼런스가 있었다. 발표자는 '9월의 예술제본' 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프랑스의 Sun Evrard 였다.

그녀는 자신의 작품 설명에 앞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. 사진들은 각 나라들의 다양한 가옥의 모습들이었다. 마다가스카르, 뉴질랜드, 아일랜드, 핀란드의 집 등 제본과는 무관한 사진이어서 모인 사람들은 약간 의아해했다. 이어서 그녀는 교차된 구조의 책작업이 일정한 구조를 갖고 그 구조를 근간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집짓기와도 같다는,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집 모양이 서로 다르듯 교차된 구조의 틀도 마찬가지로 도안을 그리기에 따라 수천·수만의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흥미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.



이 간단한 도안은 처음에는 꽤 골치 아프지만 한번 책을 만들어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. 미리 께매는 날개(a)들의 수를 정하고 표지에 쓸 종이도 먼저 준비해야 하며, 제본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 도안과, 베껴 그리기와, 도안 자르기, 책의 각 대수에 구멍뚫기 등의 모든 작업 후에 '께매기'를 통해 text와 표지가 만나 제본이 완성된다. 정확한 도안을 기본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께매기가 끝난 후 모든 '구조'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'교차'될 때 그 느낌은 고전제본과는 또 다르다.

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적인 제본보다는 낡은 모습의 고전제본을 더 좋아한다.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다. 고전제본을 할 때는 기분마저도 진지해지고 약간의 숭고함마저도 느끼게 되지만 교차된 구조 등 현대식 제본은 가벼운 느낌으로 임하게 된다고 한다.

그 느낌의 차이는 알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, 전에도 말했듯 이 교차된 구조 제본은 책에 부담이 가서는 안 되는 고서의 복원을 위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제본이라는 것이다. 책 만들기의 진지함과 숭고함이 전통과 현대의 책을 구분해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.

- **제본** 작은 성경과 찬송가 | 크기 70×100 | 송아지가죽 4대수씩 연결해 꿰매기
- **제본** 'Sur la Statue de ZOLA' Octave Mirbeau | 크기 108×145 | 버팔로가죽 | 출판사 l'échoppe
- **제본** 'Ca Suit Son Cours' Edmond Jabès | 크기 140×220 | 사포질한 버팔로가죽 아마실 바느질 | 출판사 Fata Morgana
- **제본** 교차되지 않은 교차된 제본 | text의 다양한 색상이 보일 수 있도록 책등을 노출 | 긴 선과 리본은 캥거루가죽에 염색 painting 표지가죽은 염소가죽의 뒷면

